

---

#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동화 분야

---

작품 제목	흑염소의 검은 마음
-------	------------

---

## 동화 본문

---

화창한 어느 날, 동물 친구들이 모여 사는 한로마을이 있었어요. 흑염소는 동네에서 유명한 목수였어요. 마을 동물들은 고칠 것이 있으면 흑염소를 찾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도시로 건너갈 다리가 무너졌어요. 한로마을의 거북이 이장님은 다음 달에 있을 딸의 결혼식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흑염소에게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리만 잘 만들어준다면 내가 좋아하는 풀은 내가 많이 줄게”

“감사합니다. 이장님. 금방 만들겠습니다.”

흑염소는 다음 날 다리 만들기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 원숭이의 나무 공장에 찾아갔어요.

“원숭이야. 이게 제일 저렴한 나무지? 이걸로 준비해 줘”

“이런 나무로 다리를 만들면 금방 무너질 텐데 괜찮을까?”

“이 정도로 설마 무너지겠어? 바나나 챙겨줄게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

원숭이는 흑염소의 어두운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다음날, 다리를 만들기 시작한 흑염소는 혼자 생각했어요.

‘에이~ 홍수가 설마 또 나겠어? 귀찮은데 대충 만들어야겠다.’

일주일 뒤 흑염소는 다리를 완성했으니, 모두에게 편하게 다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거북이 이장님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마을 주민 모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모두가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앞서가던 동물 친구들은 큰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어요. 흑염소가 만든 다리는 무너져있고 고양이 가족들이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거북이 이장님은 바로 물에 뛰어 들어가 고양이 가족을 구했어요.

고양이 가족이 정신을 찾은 뒤, 거북이 이장님은 다리가 무너진 이유를 묻기 위해 흑염소에게 호통쳤어요.

“흑염소! 원숭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황한 흑염소는 풀숲으로 도망쳤지만 뒤따라온 동물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흑염소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소리쳤어요.

“난 잘못이 없어! 원숭이가 약한 나무만 팔아서 다리가 무너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원숭이 사장님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흑염소 네가 나한테 약하고 값싼 나무를 가져갔잖아? 왜 내 탓을 해?”

“너도 맛있는 바나나 먹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거북이 이장님은 다른 동물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하고 둘만 불렀어요.

“우리 한로마을에는 너희들 같은 거짓말쟁이들은 발붙이고 살 수 없어. 당장 마을에서 떠나!”

남겨진 흑염소와 원숭이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 나무로는 안된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영원히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너도 바나나 주니깐 좋아했잖아. 왜 너만 착한 척이야!”

의견을 좁히지 못한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어요.

혼자 남은 원숭이는 옆 동네 둘로마을로 갔어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둘로마을 사람들은 원숭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원숭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둘로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원숭이를 비난했어요. 그 모습에 놀란 원숭이는 공기 빠지게 도망쳤어요. 그렇게 원숭이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 떠도는 삶을 시작했어요.

쫓겨난 흑염소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어요. 흑염소는 세로마을로 찾아갔어요. 세로마을의 이장님은 흑염소에게 사막의 경비 근무를 시켰어요.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사막이지만, 흑염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흑염소에게는 사막 경비의 일은 많이 어려웠어요. 또, 한로마을과 다르게 세로마을은 흑염소가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세로마을은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물도 없고 정말 살기 너무 힘들다. 한로마을이 좋았는데... 정직하게 다리를 만들었다면... 내가 이런 고생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흑염소는 하루하루 후회하며 한로마을을 그리워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 지친 흑염소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상 속에는 흑염소가 꿈에 그리던 한로마을이 있었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 흑염소는 한로 마을이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로 마을이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내 눈앞에 한로 마을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내 한로마을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러다 환상에서 깬 흑염소는 눈물을 흘리다가 너무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편, 떠도는 생활을 하던 원숭이는 흑염소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흑염소가 세로마을에서 경비일을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원숭이는 세로마을에서 받아줄거라고 생각해 세로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로마을로 향하던 중 쓰러져 있는 흑염소를 발견했어요. 원숭이는 깜짝 놀라며 흑염소를 깨웠어요.

“이봐! 흑염소! 정신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야? 원숭이 너는 왜 여기 있어?”

“나는 살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다가 세로마을에서는 정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내가 여기 쓰러져있길래 내가 깨웠어.”

오랜만에 만난 흑염소와 원숭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갈 곳이 없어진 흑염소와 원숭이는 어쩔 수 없이 한로마을로 돌아갔어요. 한로마을에서는 무너진 다리를 다시 고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목수가 없어 제자리걸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원숭이와 흑염소는 마음이 아팠어요.

“원숭아, 우리가 마을 주민들을 돕는 건 어때?”

“하지만 우리가 돕겠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면 밤에 몰래 도와주자!”

그렇게 들은 매일 밤마다 조금씩 다리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다리를 보고 이상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리는 조금씩 완성되어가고 있었어요. 우연히 밤 산책을 하던 부엉이는 흑염소와 원숭이가 다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날 아침 다리는 결국 완성되었고, 부엉이는 밤에 본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밤에 다리가 조금씩 지어지던 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흑염소와 원숭이가 만들고 있더라고.”

부엉이의 말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흑염소와 원숭이가 만든 다리는 믿을 수 없어.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로마을의 주민들 모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태풍은 한로마을의 건물과 도로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한로마을의 집과 학교,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물까지 모조리 부서졌지만 흑염소와 원숭이가 만든 다리는 멀쩡했어요. 그걸 본 마을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흑염소와 원숭이를 찾았어요.

마을 주민들을 만난 흑염소와 원숭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툇툇 흘리며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친구들아. 너희를 속이고 다리를 대충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래?”

거북이 이장님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큰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든 것을 보면, 둘은 확실히 반성한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둘을 반기기엔 마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그렇다면 저희도 마을 주민들을 도와 한로마을의 고장 나고 부서진 것들을 같이 고칠게요.”

둘의 도움으로 한로마을은 금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흑염소와 원숭이는 마을 주민들의 따뜻하고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후,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